



Unbundling Competition

에피소드 2: 동남아시아의 경쟁법 – 인도네시아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HSF 홍콩 사무소의 파트너 및 아시아 경쟁법(독점규제법)분야 책임자인 Adelaide Luke와 HSF 공식 연합 인도네시아 로펌 Hiswara Bunjamin & Tandjung의 파트너 및 경쟁법(독점규제법)분야 책임자인 Sakurayuki가 인도네시아 경쟁법의 최근 및 현재 진행 중인 몇 가지 발전에 대해 살펴봅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동남아시아에서 경쟁법을 처음 도입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인도네시아 경쟁 규제 기관인 KPPU(사업 경쟁 감독원)는 지난 20 년 동안 반독점 침해를 시행하고 합병 통제를 시행하는 데 있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여 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경쟁법이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몇 가지 주요 개발이 있었습니다.

첫째, 경쟁법은 다른 여러 법률과 함께 최근 '옴니버스 법'으로 개정되었는데, 이는 외국인 투자를 더욱 유치하고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업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2020 년 10 월에 통과되었습니다. 옴니버스 법의 경쟁법 개정안은 현재 상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KPPU(사업 경쟁 감독원) 결정에 대한 항소 간소화와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선을 없애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 옴니버스 법은 수사 또는 조사를 방해하는 형사제재를 제외한 반독점 침해에 대한 모든 형사 제재를 해제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경쟁법 초안에 따라 보다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가장 최근의 법률 초안에 관련한 2018 년 12 월부터의 변경 사항에는 현재의 사후 신고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전 신고 합병 신청

제도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KPPU(사업 경쟁 감독원)의 합병 심사가 지금까지 장시간 지연된 전례를 감안할 때, KPPU(사업 경쟁 감독원)가 적기에 신고서를 검토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초안법의 또 다른 주요 변경 사항은 카르텔 관용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좀 더 최근인 2020 년 10 월 6 일, KPPU(사업 경쟁 감독원)는 2019 년의 합병통제규정(기업 인수, 합병 및 합작관련 검토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제공하는 새로운 합병 통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2019 년 규정은 합병 신고 대상 거래 유형을 자산취득과 더불어 인도네시아에서 한 당사자만 활동한 경우에도 관련 기준치를 충족하는 거래를 포함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규정은 어떤 유형의 자산 취득이 신고 대상인지를 명확히 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국인 대 외국인"거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합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의 경쟁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변화와 KPPU(사업 경쟁 감독원)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